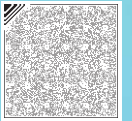


2008 | 11 + 12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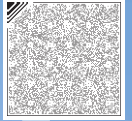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福生於清儉(복생어청검)
德生於卑退(덕생어비퇴)
爲不節而亡家(위부절이망가)
因不廉而失位(인불염이실위)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데에서 생긴다.
절약하지 아니하면 집안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는다.

- 다산 정약용(1762~1836)



2008 Vol.05

Contents

- 04 기획취재 야음초등학교 <바람이>
"청렴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요!"

행복한 사회

- 10 해피투게더 답답한 속 시원하게, 든든한 국민의 흑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 청렴예찬 청렴혁신 선도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찾아서
16 바로 이 사람 산악인 엄홍길
20 고충처리야화 내 아버지의 묘자는 어디에
22 문화산책 영화 <형사 서피코>

즐거운 세상

- 24 즐거운 메시지 서로를 존중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26 오감여행 유유자적 철새 따라 떠나는 겨울여행 3선 - 천수만, 금강하구 등
30 트렌드 읽기 남자, 하이힐에 눈뜨다
32 생활법률 110 전·월세 임차보증금 돌려받기
34 해외 반부패 동향 국제사회, 한국 반부패 정책 '주목'
36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전임강사 2년 이상 하면 현직 아니어도 정교사 자격 줘야
37 ACRC 카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38 영어로 배우는 행동강령 금지된 물품 등의 처리
39 Thanks Letter 도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님께

40 ACRC 소식

42 독자 코너

발행일 2008년 12월 5일(각월발행, 통권5호, 비매품) | 발행인 양건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편집 김덕만 | 주소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 | 전화 02-360-2725 | 팩스 02-360-2699 |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획·디자인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외부 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부정을 저지르겠는가?” 한 조사업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결과, 대상자의 1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직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방글라데시 청소년보다 7배나 높은 22.6%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반부패 윤리의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는 이 같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렴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에서는 청렴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의 야음초등학교를 소개한다.

야음초등학교 <바름이> **청렴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요!

* 청렴연구학교?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교육사업

청렴연구학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청렴의식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며 학생 스스로 청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매탄고등학교(수원)
- 야음초등학교(울산)
- 양산초등학교(광주)
- 언남고등학교(서울)
- 연제고등학교(부산)
- 영암중학교(전남)
- 영주여자고등학교(경북)
- 흥도초등학교(대전)





역할놀이를 통해 청렴을 배워요 “레디~고!”

지난 10월 21일은 야음초등학교에서 청렴연구학교 결과 보고회가 있었다. 보고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5학년 3반에서 ‘정직한 생활’이라는 단원의 공개수업. 이날의 학습목표는 ‘정직한 행동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봅시다’였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은 한목소리로 <바람이송>을 불렀다. <바람이송>은 야음초등학교 학생들의 언제 어디서든 ‘바른’ 생활을 하는 <바람이>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의 가사로 동요 ‘초록 바다’를 개사한 노래다.

노래가 끝나고 아이들과 담임교사는 TV를 켜고 반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 동영상을 시청했다. TV 화면에는 시험시간에 커닝을 하는 친구의 모습이 나왔다. 뉴스가 끝나자 교사는 아이들에게 TV 속 친구의 행동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손을 번쩍 든 몇 명의 아이들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커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점수를 받아 칭찬을 받으려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대답을 했다. 이어서 교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건넸다. “그렇다면 나의 정직 지수는 얼마나 될까?” 아이들은 하나 둘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교사는 아이들의 대답을 토대로 제작한 설문 집계표를 칠판에 붙이고 1위부터 5위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으로 ‘숙제를 낼 때 친구의 것을 베껴 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설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놀이를 발표하는 시간. 5학년 3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준비를 한 시간이었다.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볼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 표정이었다.



“어른을 만났을 땐 공손히 인사를
친구를 만났을 땐 반갑게 인사를
청소를 할 때는 끝까지 열심히
많은 일 있을 땐 최선을 다해요

선생님 얼굴에는 (미소가)
나의 얼굴에도 (웃음이)
우리는 야음 바람이지요
우리는 야음 바람이 친구”

예절, 정직, 책임, 질서 네 개의 모둠은 “레디, 고!” 소리와 함께 각자 준비한 역할놀이를 친구들에게 선보였다. 예절모둠은 미술시간에 종이접기를 하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잘못을 엄지에게 덮어씌운 친구의 이야기, 정직모둠은 숙제를 못 해 다른 친구의 숙제를 보고 베끼는 친구의 이야기, 책임모둠은 학교를 마치고 피씨방에 간 뒤 엄마에게는 학교 수업이 늦게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 질서모둠은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자신의 게임 레벨을 부풀려 말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연기했다.

네 모둠의 역할놀이를 모두 본 아이들은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느꼈다”며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TV가 켜졌다. TV에서는 수업이 시작할 때 나왔던 뉴스가 다시 방영됐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처음의 뉴스와 달라져 있었다. 뉴스에는 아이들이 시험시간에 커닝하지 않고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도 주우며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뉴스 동영상이 끝나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의 표정이 벌써 참된 ‘바름이’가 돼있는 듯했다.

노력의 결실을 보고 칭찬해주세요!

공개수업참관이 끝나고 급식실에서는 실적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큰 관심이 모인 곳은 <바름이 일기>와 <바름이 신문> 코너. 야음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꾸준히 <바름이 일기>를 써왔다. 자신이 정직한 행동을 했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적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바름이 신문>을 만들어 엄마, 아빠와 함께 청렴한 생활을 다짐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음초등학교는 청렴을 주제로 한 위인전을 읽고 쓴 독서록과 영화나 만화를 보고 쓴 감상문 등 학생들과 교사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청렴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합니다

청렴연구학교 운영 보고회에서는 ‘야음 바름이’ 활동과 청렴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야음 바름이’란 정직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에서 정한 질서를 잘 지키며 예절바른 생활을 하는 야음초등학교 학생을 의미한다.

야음초등학교는 어린이 자치회인 ‘바름이 자치회’ 운영을 비롯해 스스로 청렴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된 ‘바름이 향약’을 제정하기도 했다. 보고회를 담당했던 야음초등학교 김미옥 교사는 보고식에서 “바름이 자치회를 비롯한 여러 활동들이 청렴교육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교사 71.4%, 학생 52%가 ‘아주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며 연구학교 운영이 청렴 교육에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 결과, 학생들의 청렴한 생활 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화를 통해 관내 모든 학교에 파급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



역할놀이를 발표하는 학생들



바름이 일기를 쓰고 있는 모습



공개수업을 참관 중인 교사들



— 청렴연구학교의
실적물을 관람하는 모습

I N T E R V I E W

“교사로서의 청렴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청렴의 의미는 무척이나 넓고 포괄적이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청렴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지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는 없을 테니까요.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청렴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식없이, 정직하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교사로서의 청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인 제 자신에게도 상당히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민 선생님
(아음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게 행동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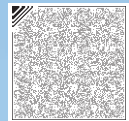
제가 속해있던 질서모듬은 역할놀이 시간에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자신의 게임레벨을 높여 말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연기했어요. 게임 레벨을 부풀려 말하면 아주 잠깐은 그 모습이 멋져 보이지만 결국엔 거짓말이 들통 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 역시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커서 이소연 언니 같은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인데, 우주인이 되어서도 후배 우주인들에게 내가 우주에 다녀온 경험을 부풀려서 자랑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우주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주선영 학생
(아음초등학교 5학년 3반)





행복한 사회

해피투게더

청렴예찬

바로 이 사람

고충처리 야화

문화산책



답답한 속 시원하게, 든든한 국민의 흑기사

대한법률구조공단



K O R E A L E G A L A I D C O R P O R A T I O N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법률복지 서비스를 아시나요? 살다보면 채무관계나 손해배상 등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한 번쯤 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 분쟁까지 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1987년 설립된 이곳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법원과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38개 출장소로 구성돼 있다.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행정부,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억울한 일에 대해 무료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두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선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돕는다. 소송 진행에 따른 조언은 물론 서류 작성을 통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거친 사안이나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민원 중 소송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가사 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무료변호와 생활법률 강연, 출장상담을 통한 준법 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인다.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는 공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연시, 경제가 불황이다보니 파산신청이나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이들의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공단과 중소기업청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할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승소가액 2억 원 초과 사건은 제외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또는 기타 영세민 중 간이과세자에 그 대상이 국한돼 있었으나 2008년 현재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향후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월 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일반과세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민청약 152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132콜센터, 권익위 110콜센터 연계로 효율적 업무 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화로도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그곳은 바로 132콜센터. ARS 자동응답 형식이 아닌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직접 상담으로 복잡한 단계와 절차,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와 업무를 연계해 권익위 민원을 전달받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다.

경제불황, 국민과 함께 이겨낼 것 요즘 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인회생 및 파산자, 체불임금 법률구조' 서비스다.

공단 홍보팀의 추봉기 과장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260만 명에 이르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 중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연간 20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조기에 사회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적극 뒷받침 해 전담팀제를 도입, 구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무연고자, 부랑인 등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민의 기본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찾아주는 기획소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소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법적안정'을 확보하고자 발로 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이용하세요!

방문상담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3-10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www.klac.or.kr)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실시한다.



변호사와 무료상담으로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청렴혁신 선도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를 찾아서

순위	기관명	전자정부	전자정부	전자정부	전자정부	전자정부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7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9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0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요즘 'e-감사시스템'의 자량이 한창이다. 국내 최초 전자감사시스템 특허 취득과 더불어 2007년에 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07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도 선정됐기 때문이다. 과연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일까? 농수산물유통공사 청렴혁신의 '일등공신'인 e-감사시스템을 만나 보았다.





e-감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감사실 직원



제2회 '클린 티 타임'의 모습

'Clean Tea Time'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도와주고, 수급을 조절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는 최근 여러 제도의 개선과 도입을 통해 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고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청렴기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 전자감사시스템 특허 'e-감사시스템'

'e-감사시스템'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 인터넷 통합정보시스템^{ISP}상의 업무자료를 감사 자료로 자동 변환해 On-line상에서 상시 감사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2007년 1월부터 가동된 이 시스템은 같은 해 6월, 전자기술을 이용한 업무혁신 시스템의 독창성, 창의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전자감사시스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했다. 또한 12월 12일 청렴위원회^{현 권익위}에서 주관한 <2007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혁신, On-line을 타고 오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93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감사시스템의 체계는 간단하다. 현업 부서에서 평상시처럼 공사 통합정보시스템^{ISP}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경영, 사업, 그룹웨어,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돼 모든 업무의 자료가 감사 자료 형태로 자동 변형된다. 별도의 작업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실무자의 작업 부담이 없다.

감사실 청렴혁신부의 임현주 차장은 "e-감사시스템은 업무 추진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경영의 위험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조직의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모든 부서의 업무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의 모든 경영 흐름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임 차장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의 원인을 차단하고 수시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공사의 투명경영이 점차 빛을 발하게 됐다"고 덧붙이고, "감사실은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야 했던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물리적인 업무량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그 여력을 보다 심도 있는 감사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전하기도 했다.

청렴활동의 지표 '청렴혁신 마일리지'

한 해 동안 청렴에 힘쓴 공사의 직원이라면 연말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청렴혁신 마일리지' 때문. 공사는 직원의 청렴활동 참여도를 높이고자 '청렴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제도개선 제안, 부패방지 교육 참석, 내부공익 신고 참여 등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제도로서 마일리지 가장 높은 직원에게는 연말에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2008년부터는 ‘청렴혁신 롤링북(rolling book 캠페인)’과 ‘클린 티 타임(Clean Tea Time)’이 마일리지 부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청렴혁신 롤링북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청렴혁신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독서 캠페인이다. 공사 임직원이 감사실에서 선정한 청렴혁신 서적을 읽고 난 소감을 전파해 청렴혁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감사실 청렴혁신부의 황석운 대리는 “우수 소감문은 매달 공사의 사보에 실리기도 하는데 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된다.”고 전했다.

‘클린 티 타임(Clean Tea Time)’은 공사의 각 기수별 직원들이 선뜻 다가가기 힘든 감사실에 둘러 앉아 상임 감사와 대면해 청렴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업무에 관한 개인의 애로사항을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로 올해 처음 도입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청렴생활 길라잡이 ‘청렴별곡’

공사에서는 매년 청렴교육교재를 발간한다.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과 각종 잡지, 책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청렴별곡’과 ‘금강모치가 사는 물’이 그것이다.

공사가 2005년부터 발간해온 청렴사례집인 ‘청렴별곡’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청렴사례 모음으로 청렴 실천사례를 통해 임직원에게 청렴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강모치가 사는 물’은 우리나라 부패의 현 주소,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투명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가는 길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금강모치’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듯 공사의 직원들도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밖에도 공사의 청렴혁신 활동 및 추진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한 ‘청렴혁신 리플릿’ 제작과, 청렴에 관련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 ‘청렴혁신 초청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3년 연속 국가청렴도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성에 맞게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투명경영의 선두주자로서 그 입지를 굳혀갈 것이다. 🌈



공사에서 발간하는 청렴교육교재와 리플릿





캐러밴 중 만난 아이들, 해맑은 얼굴이 인상적이다.



1997년 가셔브룽! 정상에서.



히말라야 16좌* 완등, 엄홍길 대장

“제2의 인생, 8000미터에 도전하다”

엄홍길

1988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007년 로체샤르까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미터급 16좌 완등에 성공. 세계적인 산악인에서 민간외교관이자 환경운동가다. 저서로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의 약속>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 등이 있다.

2007년 로체샤르, 캠프3 ~ 캠프4 설벽을 등반 중인 대원

키 1m67cm, 몸무게 56kg. TV나 신문에서만 보아온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구릿빛 얼굴 가득 눈웃음에서 묻어져 나오는 이미지는 한없이 부드럽고 선량하다. 하지만 그는 강하다. 산에 오르는 순간 에너지가 넘치고 물러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히말라야 탱크’. 오래전 산에서 죽어야 할 사람을 아직까지 살려둔 건 제 모습을 잃어가는 자연을 살리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네팔의 어린이들을 위해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 믿는 그가 제2의 인생 구상을 내놓았다.



‘불멸의 도전’! 도전과 위기, 시련과 기적의 20년

지난 11월 중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9층 아트갤러리에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에베레스트 첫 등정 20주년 기념 히말라야 16좌 완등 사진집 ‘불멸의 도전’ 사진전과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히말라야 산간오지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어줄 계획 아래 발간된 사진집 ‘불멸의 도전’은 지난 20년 동안의 도전과 실패, 성공의 순간들을 담아낸 기나긴 여정의 기록이자 생생한 감동의 에세이다.

사실 엄홍길 대장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입지전적인 존재다. 세계의 고봉인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를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등정한 세계적인 산악인이다. 히말라야와 함께 한 그의 20년 산악인생은 도전과 위기, 시련과 기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히말라야 등정기는 깊고 험난한 고봉^{高峰}들 만큼이나 구구절절 감동과 눈물의 사연도 많다. 1985년 난생처음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와 강풍에 그냥 산을 내려오고 마는 호된 실패를 치르게 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중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로 손꼽히는 K2, 가능성 있는 젊은 여성 대원과 가장 절친했던 세르파^{*}를 잃은 아픈 기억만큼이나 무수한 사고와 실패, 희생과 눈물을 요구한 안나푸르나…….

*16좌_ 에베레스트의 8,000미터 급 봉우리 16개.

*세르파_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남쪽 기슭의 소로쿠포 지방을 중심으로 3,000미터 이상의 고산에 사는 티베트계 네팔인.





히말라야가 나를 살려주고 받아준 진짜 이유

“16좌 등정까지 서른여덟 번을 도전했고 스무 번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 명의 동료들을 잃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생각해 보면 나는 빙하나 눈 속에 잠들어 있었어야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도 히말라야가 나를 살려주고 받아준 것은 어떤 뜻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끝에 기적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는 산악인생 20년을 반추하며

제2의 인생구상을 펼쳐놓는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히말라야의 주민들을 돕고 자연을 보호하는 민간외교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이제껏 많은 8000m 산에 오른 만큼 제2의 8000m급 인생 목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목표로 삼은 ‘8000m급 인생목표’는 우선 지난 5월 설립한 ‘엄홍길 휴먼재단’을 통해 열악한 히말라야 산간오지의 교육, 의

료,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진전과 사진집 판매 수익금으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3800m에 위치한 팡보체 마을에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터^{학교}를 이룬 시 일 내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히말라야 등정 도중 느낀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심각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급속한 온난화로 히말라야 고봉들의 눈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산 아래쪽 산간 마을이나 통행로·도로가 유실

돼 인적·물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게다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6,000m 이하에서는 흰 눈이 아니라 누르스름한 눈이 돼 식수로 쓰지 못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나 홍수 피해를 당한 네팔 주민들에 대한 구호작업도 별일 계획이다.

어린 시절 도봉산을 오르며 삶의 목표를 정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그는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등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을 통해 배려와 이해, 양보, 희생정신을 기르고 나아가 모험과 도전의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산과 자연 속에 만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올해 나이 마흔 여덟.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산악인에서 자연사랑, 환경사랑, 인간 사랑의 전도자 역할을 꿈꾸는 ‘영원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 그의 멋진 변신을 기대해본다. 🌍



“내 아버지의 묘지는 어디에”



| 글 전성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 조사관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당시 나는 매일 쏟아지는 민원에 파묻혀 있었다.
그 때 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네 번이나 묘지를 옮긴 기구한 사연

일흔을 넘긴 할아버지는 조상들이 물려주신 농토에서 농사 짓는 것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물려받은 농토가 있어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항상 조상들께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해 한해를 지내왔는데, 얼마 전 정부로부터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묘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별써 네 번이나 묘지를 옮겼는데 또 옮기라고 하니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다. 남들은 일생에 한번이나 있을까 하는 일이 할아버지에게는 네 번씩이나 벌어지니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논 2필지 대금을 주고 새로 옮길 묘 자리를 구했는데, 글썄 그 자리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할아버지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륜이 천륜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지하에서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무덤이라도 아무 탈 없이 만들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그러니 제발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에나 나올 만한 일이었다.





처음 묘를 옮기게 된 것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묘지는 따로 떨어져 있었으나 조부모님 뒤편에 대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한곳에 모시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자리가 공설공원묘지자리로 확정이 돼 다시 뒤편을 옮기게 됐고, 세 번째 옮긴 곳은 고속도로 공사지에 편입돼 또다시 이장을 하게 됐다. 그런데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구간에서 백제유물이 발굴돼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하필이면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 곳이 설계 변경된 구간에 편입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다섯 번이나 조상의 묘지를 옮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가 이번에 마련한 뒤편은 도로에서 불과 1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곳이었다. 한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보상받은 돈에 조금 더 보태 이번 뒤편을 마련한 것인데 이곳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조상들의 묘를 어디에 모셔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군의원 설득해 군 공원묘지로 이장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에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달리 어찌 도움을 드려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를 만나 뵈게 됐다.

우선 할아버지가 조상의 묘를 옮기고자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할아버지가 새로 묘를 쓰고자 하는 자리는 평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법적인 문제로 인해 그곳에는 묘지를 쓸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렇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할아버지는 공원묘지에 묘를 쓰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당시 군 공원묘지는 생장이 아니면 묘지를 쓸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4번씩이나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그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을 할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담당자들을 설득했다. 이제 고속도로 공사도 묘가 있는 곳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은 지체하고 있을 수 없었다. 군 공원묘지에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묘 4기를 쓸 수 있도록 군 의

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며칠 후 마침내 군으로부터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묘를 군 공원묘지에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느꼈던 안도의 한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만약 할아버지의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부모님 묘가 강제수용이 되어 영영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했다. 할아버지 조상의 묘가 사사로운 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일로 옮겨진 것이다 보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원망이 더 깊어질 것이었다.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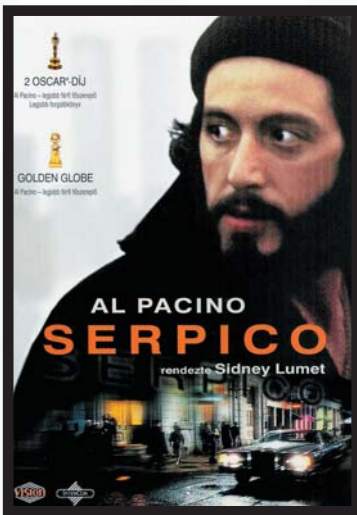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이제나마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 왔다. 할아버지의 부모님 묘가 더 이상 이장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AL PACINO SERPICO

양 심 의 호 루 라 기 를 힘 껏 불 어 라

형사 서피코



형사 서피코의 고군분투

‘왕따’ 집단 따돌림가 두려운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늘 남과 어울리고 함께 호흡하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인간. 그래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

는 인간이 어느 날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받는다면, 그런 존재의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명배우 알 파치노가 주연한 영화 ‘형사 서피코’ 1973년은 동료형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한 형사의 위태로운 운명이 전개된다. 주인공 형사 서피코는 집단따돌림보다 한층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통속이 된 동료형사들이 그를 따돌리다 못해 아예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왕따’에다 살해위협까지? 어쩌다가 서피코는 이런 위험천만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당초 서피코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정직한 형사. 때론 “용통성이 모자란다”는 비난을 듣는 그는 경찰이란 자부심 하나로 산다. 하지만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해온 공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자기 구역이 아니란 이유로 범인검거를 소홀히 하는 동료경찰은 아예 애교에 속했다. 마약반 동료형사들은 범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금을 한 뒤 공공연히 모여 이를 나눠 갖는 게 아닌가. 경찰 고위층에 “경찰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피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적당히

살라”는 회유였다. 결국 서피코는 경찰 내부의 비리를 신문에 폭로하고, 부패 경찰에 대한 척결작업이 여론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피코에겐 시베리아 별판보다 추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마약반으로 좌천된 그는 동료형사들의 보복으로 총상을 입는다.

양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영화는 미국 뉴욕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위장침투 전문 형사 프랭크 서피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 실제로 서피코 형사는 1972년 ‘가장 용감한 경찰’에게 주는 공로훈장을 받고 경찰을 떠나 지금은 스위스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피코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고독했다. 자신이 속한 집단 내부의 부패된 시스템과 투쟁하는 일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잡는 것보다 더 크고 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었다는 자기 확신과 위안으로 다가올 시린 운명에 맞선다. ‘조직의 배신자’란 비난도, ‘고자질쟁이’란 인신공격도 참아내어야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내부고발은 마치 밧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번지점프와 같다”고. 그만큼 어떤 영달도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자신의 내일과 싸워야 할 운명을 내부 고발자는 짊어진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지는 의견이 대두되는 움직임도 이 때문이다.

형사 서피코는 결국 현업에서 은퇴하고 말았다. 그는 조직을 떠났다. 서피코의 용기 있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했던 집단의 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제2, 제3의 서피코는 계속 나올 것이다. 부패가 인간의 본능이라면, 양심은 인간의 더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



즐거운 세상

즐거운 메시지

오감여행

트렌드 읽기

생활법률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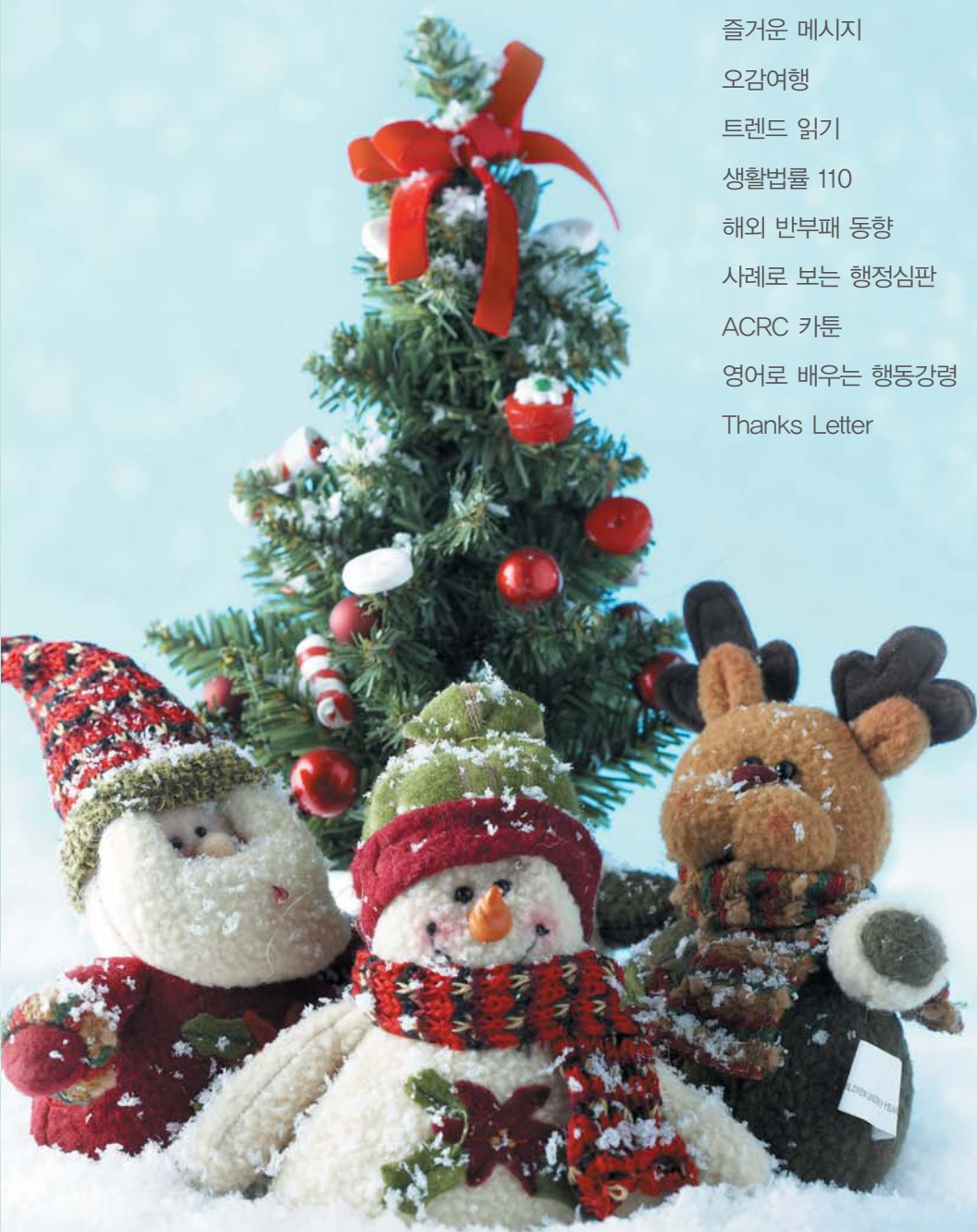
해외 반부패 동향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ACRC 카툰

영어로 배우는 행동강령

Thanks Letter



서로를 **조금씩** 하면 **인간의** 명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같은 곳은 사람들 사는 곳보다 사막이 차지하는 지역이 훨씬 더 넓다. 국토의 98%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니 거의 대자연 속에 인간이 살짝 한 발 디딘 정도인 셈이다. 그러한 사막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무 것도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숨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방울뱀이다. 치명적 독을 가진 이 녀석의 위력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조금만 한적한 곳에 나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녀석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한 해에도 수천 명이 방울뱀에게 물린다고 한다. 집에 들어온 방울뱀, 운동장에 나타난 방울뱀……. 수시로 나타나는 이 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리지만 정작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고작 열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 사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응급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병원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의미이다. 인명을 존중하는 선진국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런데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독사에게 물리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물리는 건 수는 미국보다 더 적을지 몰라도 죽는 사람은 몇 배, 아니 몇 십 배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시아의 뱀이 더 독해서가 아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주변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즐비했다. 뱀에 물리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못에 발을 찢려 파상풍에 걸려도 방치해 죽었고, 산과 들에 널린 6.25때의 불발탄에 팔과 다리를 희생당하기도 했다. 내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원시적 사고의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최소한 독사에 물려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19를 부르면 구급차가 신속히 달려온다. 사회 안전망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화재의 현장이나, 인명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들의 봉사 정신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온 국민이 나서서 모두가 '자신의 죄'인 듯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작은 돌맹이 하나까지 씻어냈다. '독사에 물려 사느냐 죽느냐'도 이렇게 한 사회의 선진성에 의해 좌우된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바로 국민들 서로의 권익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 비롯된 것이리라.

위급한 상황에 몰린 사람이 생명을 지킬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올바르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 국민권익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어떤 나라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된다. 🌍



유유자적 悠悠自適

철새 따라

떠나는

겨울여행 3선選

천수만 금강하구 고천암호



일몰 무렵 겨울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철새들의 군무는 김동의 서사시이고 장엄한 자연교향곡이다. 철새들의 춤사위는 어떤 솜씨도 따라 할 수 없고 하늘에 그려내는 그림은 어떤 화가도 재현할 수 없다. 이 땅에 날아와 겨울을 보내는 철새들은 인간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준다.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 천수만과 가창오리떼의 천국 간월호

겨울철새들에게 우리나라의 갯벌과 호수, 저수지 등은 없어서는 안 될 월동지다. 충남 서산의 천수만과 간월호,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이 맞닿은 금강하구, 전남 해남의 고천암호, 전남 진도의 군내호, 전남 순천의 순천만, 경남 창녕의 우포늪과 창원의 주남저수지, 강원 고성 의 화진포와 송지호, 제주시의 하도리 저수지 등이 대표적인 탐조여행지로 손꼽힌다. 철새들은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질 못한다. 날씨가 따뜻하면 중부 지방에서 머물다가 북풍한설이 매섭게 몰아치면 좀 더 기온이 따스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다. 비록 먹이가 풍부한 월동지일지라도 갑작스레 인간의 소리와 빛이 번잡스러워지면 그것들을 피해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다. 해서 탐조여행에 나서려는 여행객들은 어느 고장에 철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서해안고속도로 흥성 나들목을 빠져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서산방조제를 건너게 된다. 북쪽에는 간월호와 부남호, 남쪽에는 천수만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런 곳들이 철새들의 월동지이다. 겨울 철새들이 천수만과 간월호 일대를 찾아드는 것은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추수가 끝난 뒤의 논에는 낙곡이 많이 남아있다. 철새들의 입장에서선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벼짚도 도처에 널려 있고 물도 많으니 서산간척지는 철새들을 불러모으고 철새들은 탐조여행객들을 소집시킨다.

간월호와 부남호를 가득 메운 새떼의 대부분은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가창오리들이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창오리는 몸길이가 40cm, 날개 길이가 20cm 정도 되며 깃털이 예뻐서 일명 '태극오리'라고도 한다. 시베리아 동부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가창오리는 세계적으로도 80여만 마리에 불과한 국제보호종이며 90% 이상이 한반도 서해 갯벌에서 겨울을 보낸다.



서천군의 금강변 신성리 갈대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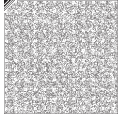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장, 금강하구

금강하구의 대표적인 겨울철새로는 기러기류, 오리류, 고니류 등이 있다. 금강하구둑을 중심으로 상부지역, 하부지역으로 나뉘 철새들을 관찰하면 좋다. 상부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부터 나포교 지역까지를 말하며 갈대밭이 있는 하중도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강 양편으로는 추수를 마친 논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 같은 환경은 철새들의 겨울나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 권역에서는 큰기러기, 고방오리, 큰고니, 흰죽지, 흰뺨검둥오리 등이 겨울을 난다. 큰기러기는 몸길이가 70~80cm나 되며 10월 하순부터 한국을 찾기 시작, 이듬해 3월이면 돌아간다. 청둥오리는 수컷의 경우 머리와 목이 빛이 나는 진녹색을 띠고 있으며 암컷은 얼룩진 갈색이다. 흰뺨검둥오리는 암수 모두 다갈색을 띠고 있다.

하구둑 하부지역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사구와 갯벌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간조 시 도선장 부근에 형성되는 갯벌은 철새 및 나그네새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된다. 기러기류가 많이 보이는 곳이다. 금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곳에는 유부도 서천시 장항읍 소속이 있다. 이 작은 섬에서는 우리나라를 찾은 검은머리물떼새의 95% 이상이 월동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가늘고 긴 붉은 부리를 가졌으며 머리와 등이 검고 배는 하얗다.

서천군과 군산시에는 철새조망대가 세워져 있다. 군산시 철새조망대 1층은 조류의 진화과정과 철새들의 장거리 비행원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영상관, 2층은 동물표본실과 수족관, 9층은 곤충디오라마관, 10층은 회전레스토랑, 11층은 조망대로 꾸며졌다. 야외에는 철새신체탐험관, 금강조류공원, 식물생태관, 부화체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있다.



아름다운 철새의 군무 향연 해남 고천암호와 진도 군내호

해남 고천암호는 1985년부터 2001년에 걸친 고천암호 방조제 축조 공사 끝에 등장한 인공호수다. 이곳 주민들은 고천암호가 겨울철새들의 새로운 서식처로 자리 잡게 된 이유로 “간척지의 기온이 따뜻하고 주변의 넓은 농토와 바다 개펄이 오염되지 않아 먹이가 풍부한데다 중국~일본 간, 시베리아, 알래스카~호주, 뉴질랜드 간 이동통로의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부 지방이 혹한인 경우 가창오리들은 이곳 해남 고천암호로 대거 이동한다. 가창오리의 춤사위는 타원형에서 새의 형상으로, 용이 승천하는 모습으로 줄기차게 변모한다. 때로 그들의 군무는 초대형 새와 같은 대열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이른 새벽이나 황혼 무렵 펼치는 군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한꺼번에 30만~40만 마리가 호수 위를 선회하는 모습은 일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장면이다.

철새의 군무 감상뿐만 아니라 갈대밭 또한 고천암호의 명성을 드높여주고 있다. 갈대밭 면적은 어림잡아 55만평. 순천만 갈대밭이나 서천군 갈대밭에 비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다. 이곳 갈대밭은 영화 ‘서편제’를 필두로 ‘살인의 추억’, ‘청풍명월’ 같은 영화의 일부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방조제나 갈대숲 무성한 수로 등에서 몸을 낮추고, 숨소리마저 죽여 가며 그들의 눈부시도록 흰 날개, 지고지순한 부부애, 어린 새끼들을 보살피는 자식사랑, 수면을 박차고 비상하는 광경 등을 보고 있으면 겨울 진도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된다. 고니 가족의 이륙에서 상승비행, 착륙과정은 우아하기 그지없다. 🌍

금강하구 갯벌의 개리



여행정보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2498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0-4554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229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4-0151

가는길

- 천수만/서해안고속도로 흥성나들목→갈산터널→서산방조제
- 금강하구/서해안고속도로 군산나들목→금강철새조망대→금강하구둑
- 고천암호/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영산호하구둑→금호방조제→77번 국도→해남군 황산면→고천암호 방조제
- 군내호/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영산호하구둑→금호방조제→77번 국도→진도대교→군내면 녹진리→군내호

숙소

서산시 : 메르디앙모텔 041-668-1222
 군산시 : 리츠프라자호텔 063-468-4681
 해남군 : 땅끝비치모텔 061-534-1002
 진도군 : 진도관광모텔 061-542-2123

맛집

서산시 : 큰마을영양굴밥 041-662-2706, 굴밥
 군산시 : 유성가든 063-453-6670, 간장계장
 해남군 : 용궁해물탕 061-535-5161, 해물탕
 진도군 : 제진관 061-544-2419, 간재미짬



MBC 리얼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에서 노홍철과 하하는 공공연하게 신발 속에 '키 높이 깔창'을 끼워 넣어 한 때 '노홍철 깔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유행을 만들었다. 실제로 바지 아래 신발 속에 남모를 비장의 무기(?)를 감춰두고 있는 남자 배우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남성 아이돌 댄스가수들은 과감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여성의 영역에 과감히 발을 들여놓는 남성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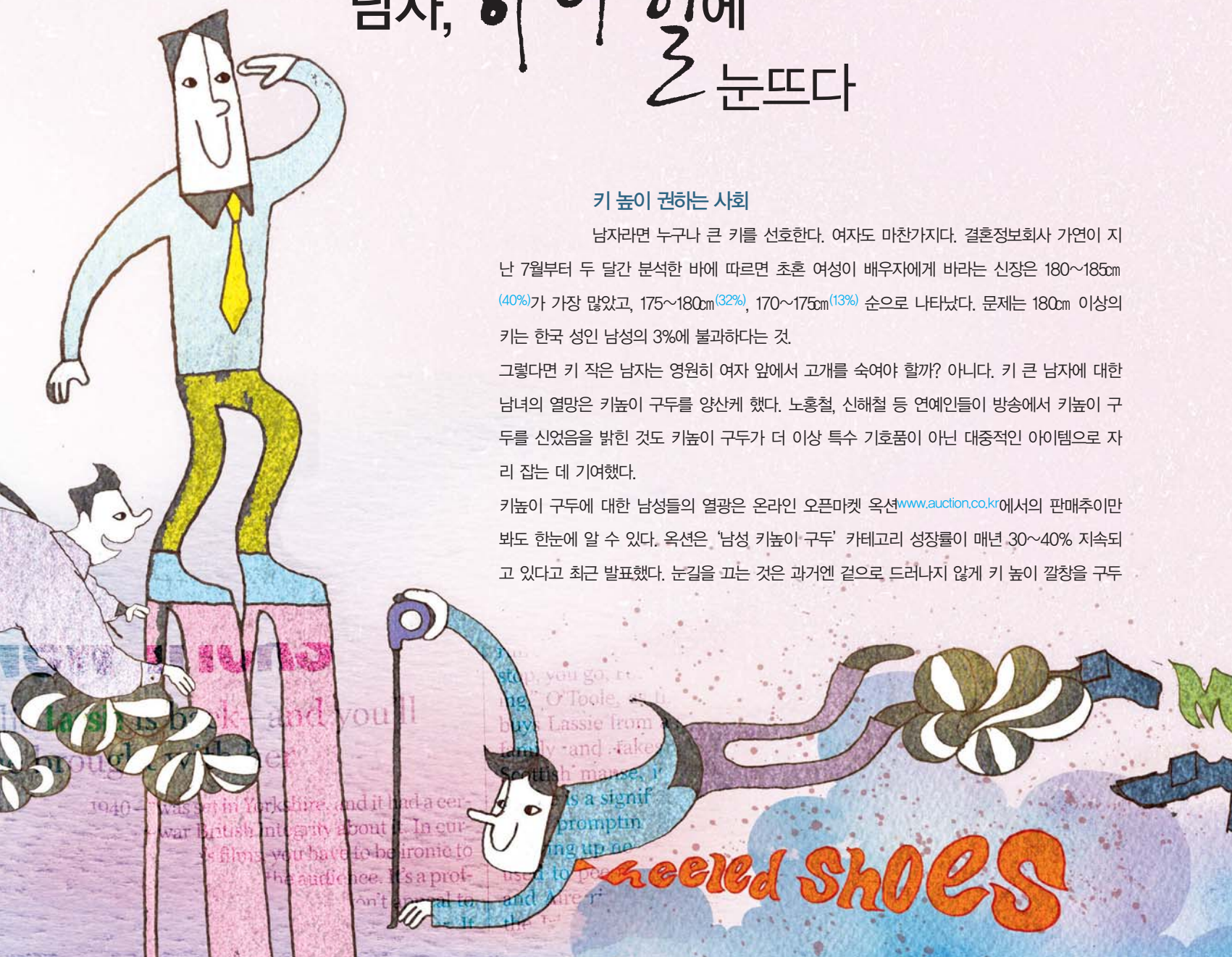
남자, 하이힐에 눈뜨다

키 높이는 사회

남자라면 누구나 큰 키를 선호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혼 여성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신장은 180~185cm (40%)가 가장 많았고, 175~180cm (32%), 170~175cm (1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80cm 이상의 키는 한국 성인 남성의 3%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다면 키 작은 남자는 영원히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까? 아니다. 키 큰 남자에 대한 남녀의 열망은 키높이 구두를 양산케 했다. 노홍철, 신해철 등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키높이 구두를 신었음을 밝힌 것도 키높이 구두가 더 이상 특수 기호품이 아닌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키높이 구두에 대한 남성들의 열광은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 www.auction.co.kr에서의 판매추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옥션은 '남성 키높이 구두' 카테고리 성장률이 매년 30~40%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엔 걸로 드러나지 않게 키 높이 깔창을 구두





속에 넣었던 것과 달리 요즘엔 과감히 걸으로 드러나는 높은 굽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 5cm 이상의 굽이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해 옥션에서만 하루 평균 150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중에는 7~8cm에 이르는 굽 높이를 자랑하는 구두도 있다. 지난해 영화배우 장동건은 한 팬 사인회에서 8cm 키높이 구두를 신고 나와 화제를 시선을 끌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과 노홍철, 정우성은 무려 10cm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고 한다. 남성용 키높이 구두는 통굽이나 면적이 넓은 굽이 대다수이지만, 여성 하이힐처럼 굽이 뾰족한 형태도 선보이고 있다.

높은 굽의 남성화 종류는 무려 500여 종. 디자인과 색상도 화려해 리본 장식과 꽃무늬 레이스를 활용한 제품도 많다. 소재도 에나멜, 악어가죽 등 다양해졌다. 요즘엔 뒤꿈치만 높은 키높이 구두뿐 아니라 발전체를 높인 '신기술 키높이 구두'도 나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성용 앵클부츠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앵클부츠는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말한다. 그동안에는 여성들이 신던 부츠인데, 남성용으로 선보여 각광받고 있다. 앞에 끈으로 묶는 형식의 앵클부츠로 나무로 마무리된 '옥스퍼드 우드 힐 앵클부츠'나 지퍼가 달려 착용감이 편안하고 버클장식이 있어 세련된 앵클부츠는 정장은 물론 보다 감각적인 옷차림에 잘 어울린다.

5cm 이상의 키높이 구두의 대중화나 앵클부츠의 인기는 날로 진화하는 '유니섹스 패션'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구두뿐 아니라 스키니 팬츠, 헤어밴드, 스카프 등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아이템들이 대거 남성용으로도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종합 쇼핑몰 디앤샵 www.dnshop.com에서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꼭 맞는, 폭이 좁은 형태의 스키니 팬츠, 각양각색의 스카프, 잔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헤어밴드 등이 남성고객들에게 잘 팔리고 있다.

패션뿐 아니라 화장품도 남성용 매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화장품 시장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3년 3,200억 원에 불과하던 남성화장품 매출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에는 53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브, 소망화장품, 에뛰드, 코리아나, LG생활건강, DHC코리아, 마이아코스, 더 페이스샵, 클라란스 등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남성화장품 라인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온라인 쇼핑몰도 남성화장품 영역을 특화하고 있다. 옥션은 남성화

장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어나자 7월 남성 미용용품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별도 코너를 만들었다. G마켓도 남성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하자 8월 남성전용 메이크업 코너를 열었다.

남성화장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요즘 남자들은 세안 후 단순히 애프터 세이프 로션이나 스킨 등 기초화장품이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에센스, 아이크림, 자외선차단제, 브라이트닝과 모이스처라이징 등의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 팩 등 각종 기능성 제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고 피부결과 색상이 좋아 보이도록 하는 남성용 비비크림이나 팩트 등의 인기도 높다.

이처럼 패션과 미용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남자를 가리켜 글루밍족(grooming族)이라고 한다. 글루밍은 몸치장을 한다는 뜻의 그룸(groom)에서 나온 신조어다. 글루밍족은 피부나 모발관리는 기본이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성형수술하고 이슬아슬한 키높이 구두 신고, 화장하고, 헤어밴드한 남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



전 · 월세 임차보증금 돌려받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불경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공포 얼어붙으면서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예전 같으면 가을을 맞아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결혼해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로 부동산 시장이 시끌벅적했을 텐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다보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거래의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일방적인 기다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연 법적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라

주택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임차한 건물을 실제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라는 법적인 효과가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관계를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래 임대차관계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 만으로는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동 표시와 주민등록상의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막 가동

한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얻은 임차인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집에 대한 저당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해준다. 즉 임차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설정된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소액임차인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그 요건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기와 확정일자의 선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근거가 되는 마지막 재산을 일정부분 이나마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우선 보호받는다.

계약기간이 다 돼 임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면, 임대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 거절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그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 즉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에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마치 당연한 관행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어디에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은 없다. 단지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부당하게 양보를 강요당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비록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 방법은 있다.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이란,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계약일자와 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등기명령을 받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 전에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면 그 때부터 새롭게 권리가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임차인들의 ‘이사할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 한국 반부패 정책 '주목'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한 장면_그리스 아테네

최근 잇따라 열린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로부터 기술 전수 요청을 받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 워크숍^{ACE}'에 참석, '반부패 기구의 위상 강화'란 주제로 반부패정책을 소개해 갈채를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부패예방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에 각국의 참석자들은 특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권익위가 민원 발생기관 방문자의 명부를 토대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 등

의 국가에서는 기술전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부탄 등지에는 이미 이 같은 기술전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참석해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또한 '구 청렴위가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의지가 약화됐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으로, 권익위는 구 청렴위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반부패 정책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International Society Pays Attention to Korean Anti-Corruption Policy

Korean anti-corruption policy has come into the spotlight in a series of recent international meetings related with anti-corruption.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meetings advocated Korean 'Integrity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and asked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o transfer the knowhow to them.

Lee Young-keun, vice chairman of ACRC, won applause by introducing its anti-corruption policy with the theme of 'enhancing an anti-corruption agency's position' at Anti-Corruption Expertise Workshop held in Singapore on October 16th.

He introduced Korean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practices, ranging from 'integrity evaluation',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to 'system of protecting and rewarding whistle-blowers'. In response, countries voiced positive opinions about them, and, in particular, about integrity evaluation, saying that "ACRC raised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by commissioning the evaluation to a professional research agency and surveying the first-hand public service users. Some countries including China asked ACRC to transfer evaluation know-how to them. ACRC has already been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Indonesia and Bhutan.

Park In-je, secretary general of ACRC, made a presentation with the theme of 'A Korean perspective on protecting the whistleblowers' at the 13rd 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held in Athens, Greece from October 30th to November 2nd. The participants in the conference valued ACRC's systematic system of protecting corruption reporters.

In response to the concerns about the alleged weakening of Korea's commitment to fighting corruption, the secretary general commented that "the former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KICAC](#) was integrated into ACRC to

improv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efforts, and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KICAC were succeeded by ACRC." He also stressed that Korean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전임강사 2년 이상 하면

현직 아니어도 정교사 자격 줘야

정 모씨는 지난 1996년 A대학을 졸업해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훗날 아이들을 가르칠 꿈을 키우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전임강사로 열심히 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가르친 경력자에겐 중·고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주고 있다. 정 씨도 약 4년간의 전임강사 경력이 있기에 올해 관할 교육청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 씨의 경우 전임강사경력이 2년 이상인 것은 맞지만 신청 당시^{2008년} 전임강사의 신분이 아니므로 시험 없이 교사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씨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본인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4년간의 강사경력도 있는데 현재 교원 신분이 아니란 이유로 교사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너무나 억울했던 정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정 씨의 사건을 접수한 국무총리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서는 정교사 자격자의 요건을 현직”으로 전제하지 않았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 현재 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우연한 사정이 교사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교사자격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분야에서 10년이 넘게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정 씨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글 * 그림 만빵



금지된 물품 등의 처리

김 선생.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Ms. Kim. What is it on the desk?

아 이거? 정말 골칫덩어리야. 내가 도와준 민원인이 고맙다면서 놓고 간 핸드백이야.

Ah, this handbag ?

It's really a pain in the neck. It is a thank-you gift from a public-service user.

꽤 비싸 보이는 군. 처음부터 거절하지 그랬나?

It looks quite expensive. Why didn't you refuse it in the first place.

당연히 거절했지.

그런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에 놓아두고 가버렸지 뭐냐?

Of course I did. But she left it on my desk and disappeared while I was off my seat shortly.

돌려주면 간단하지.

It would be simple if you return it.

!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네. 이 핸드백을 처리할 방법이 없겠는가?

I have no idea about where she lives. What shall I do with this handbag ?

잠깐 행동강령을 찾아볼게.

(잠시 후) 아 이런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면 그가 적절히 처리할 걸세.

Let's look it up in the code of conduct for a moment.

Oh. In this case you report it to the code of conduct officer, and he will handle it properly.

고맙네.

Thanks. 🌈





도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님께

바쁜 현대인에게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농촌은 현재 석유는 물론이고 가축사료, 비료를 포함한 PE필름, 포장박스 등 모든 농자재의 가격이 최소 40%에서 최대 2배 이상 인상돼 농사짓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헤쳐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령·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창고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실 등이 부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료창고는 축산농가 2,474명의 조합원이 사료 반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도로확·포장 때문에 창고 앞 주차는 불가능해졌고, 증·개축도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주차장과 관리실이 없는 창고는 창고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창고 전체를 매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창고 모두를 매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는 문서를 받고 우리 고령성주축산농협 2,400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고 사료 판매보

관창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장조사 나오신 김경태 조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데도 직접 현장에 내려와 우리들의 고충을 듣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보통 고충민원을 제출하면 관련기관이나 타 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민원을 권익위에서 직접 처리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점입니다. 얼마 전 인천대교 공사인근 소음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익위가 국민들 마음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번 우리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권익위처럼 국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일을 처리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빛이 되는 권익위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오며 다시 한 번 고령성주축산농협 2,400농업인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령성주축산농협 조합원 2,474명 대표
조합장 이왕조 올림



ACRC NEWS

2008년 10월 31일 06면 (IT정책/일반)

‘국민신문고’ e챌린지 최우수상

스웨덴 콘퍼런스서 시연

정부민원과 국민제안의 범정부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챌린지 2008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e챌린지 콘퍼런스에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시연,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부문에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10개국에서 출품한 26개 전시작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민원과 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일창구로서 SK C&C가 관

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챌린지 콘퍼런스는 18번째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전자정부를 비롯한 IT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해 매년 논의하는 정기국제회의로, 출품된 전자시스템 중 매년 한 작품씩 최우수작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과 온나라시스템, 정부통합센터, e하나로민원시스템, 소방방재청 U-119,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참가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

디지털타임스

2008년 11월 05일 10면 (사회)

‘종교 편향 행위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교계의 종교 차별 금지 요구를 수용해 개정된 새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종교에 대해 불공정 또는 차별 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혹은 불이익을 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고 했다.

최경은 기자 code@chosun.com

朝鮮日報

2008년 11월 05일 23면 (부동산)

“등재 안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뎌 분양 아파트 공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철거될 경우에도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현행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지금까지 관리대장에 오른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왔다.

한국경제

2008년 11월 12일 04면 (종합)

농공단지 200만㎡까지 허용

지자체별 면적제한 25%확대
태양광발전 어디든 설치 가능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공단지 지정면적이 최대 200만㎡까지 확대된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제한이 사라져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을 업무보고했다.

우선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2개 지자체에서 여의도 면적(8.5km²)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내년에만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0배(590km²)에 달하는 공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우체국 자동화기기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평일 오후 6시(주말 오후 2시)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 6884개 업체에 대한 한 가지 인증만 받으면 나머지 인증에 대해서 심사료(33만원)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중복인증에 따른 비용 20여원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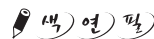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시기를 한 달에서 일주일로 대폭 줄여 기업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2008년 11월 15일 09면 (사회)

국민권익위 덕에 자리보전한 ‘명품 소나무’



학교가 폐교되면서 팔려나갈 처지에 놓인 시골학교 그루터기 나무가 동문들의 민원으로 그 자리에 남게 됐다.

고향을 지키게 된 나무는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초등학교에 사는 수령(樹齡) 70년 짜리 소나무. 70년간 이 마을 어린이들의 쉼터이자 벗으로 학교 운동장 한쪽에 서있었던 소나무는 1996년 폐교된 이 학교 교사(敎舍)에 대해 최근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외부로 팔려나갈 운명이 됐다. ‘풍채’가 좋아 가격은 5000만 원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소식을 전해들은 학교 졸업생 222명은 ‘소나무지킴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백방으로 뛰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송군청 및 청송교육청과 협의에 나서 “청송군청이 학교 교사 전체와 소나무를 사들여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는 조정을 냈고, 14일 청송군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소나무는 추억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최경은 기자 code@chosun.com

朝鮮日報



〈권익위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



권익위 직원들이 양건 위원장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의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 방법 등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된 선언문은 ▲국민 중심의 행정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고충민원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국민권익위원회 전 직원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문화와 사회풍토를 확립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국민을 맞이하고, 모든 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원회, 국민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4.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부패신고의 공정한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보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과 부패의 근원적 유발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6. 우리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민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국민의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행정서비스헌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의 가려운 곳, 찾아가서 긁어준다”

– 권익위, 시화공단서 근로자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체 6천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10여 명이 참여하여 금융, 건축, 노무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현장상담이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4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체 6천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독자코너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달의 QUIZ

1. 2008년 1월 전국 시·도 교육청 선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식 형성을 돕는 학교는?(힌트 4페이지)

▶ ○○○○○○

2.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얻은 임차인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를 받으면 그 집에 대한 저장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해준다. (힌트 32페이지)

▶ ○○○○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월 20일)
독자퀴즈는 본문 내용 중에서 출제되며 다음호에 정답이 게재됩니다.

■ **지난호 퀴즈 정답** 1번 정답 : 국민고충, 2번 정답 : 정약용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9+10월호 당첨자
(채규정, 강건우, 김진화, 송국화, 박인숙)



● **채규정**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몇몇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억울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곳이 있다니 든든합니다. 이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 **강건우**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이번호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의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모든 내용이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 직원들과 함께 교대로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2008 한국 청렴도 세계40위'편을 읽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정책으로 최소 10위권 내에 진입해 대한민국의 깨끗한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 **송국화**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악덕기업주를 욕했었는데 '생활민원110'의 임금체불에 관한 기사를 읽으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사를 읽고 자신의 권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숙**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기슴으로 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형제, 내 부모의 일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군대에 보내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해지고 국방의 의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블룸 UPI〉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 수기를 e-mail(junmin79@acrc.go.kr)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다양한 체험수기로 이루어집니다.

〈Thanks letter〉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의 감사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행복과 권리 행정심판으로 바로 잡으세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해 드립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청구방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 가능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 또는 처분청에서
서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

소관사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